

##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21일 개막

금남로서 연극·가면극·공중극 등 19개 거리공연 펼쳐  
22일 비엔날레광장서 미술퍼포먼스·전통탈춤 등 다채  
28~29일 시청 야외음악당 화려한 스트리트댄스 경연  
20~21일 전일빌딩~금남공원 통제...“교통불편 양해를”

9월 광주 거리가 예술공연과 최정상급 스트리트댄스 경연 등 '꿀잼'으로 가득 채워진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거리예술축제의 대명사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을 오는 21일 금남로에서 막을 올린다. 프린지는 9월 2주간 토·일요일 금남로, 비엔날레 광장,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프린지는 '어쩌다 마주친'을 주제로, 무심히 지나치던 거리에서 어쩌다 마주친 '거리예술'을 통해 우리들의 이야기와 일상의 소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도로 마련됐다. 이번 프린지는 서커스·무용·음악극 등 다채로운 장르의 '거리예술 공연'을 비롯해 퍼포먼스·1대 1·3대 3 댄스배틀을 벌이는 스트리트댄스 경연대회, 맛있는 먹거리와 즐겁게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 등이 준비됐다. 먼저 21일 금남로에서는 연극, 가면극, 공중극, 신체극 등 전문 예술단체가 참여하는 19개의 다양하고

풍성한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윌웨이즈 드리킹(스페인)의 브라스 마칭밴드 '거리는 우리의 것', 이판(프랑스)의 서커스 줄타기 '나의 날개', 라이 이(홍콩)의 서커스 파이어 '흐름' 등의 해외 초청공연과 함께 댄랑폴리댄스컴퍼니의 무용 '초인', 창작그룹 노니의 이동형 가면극 '바람노리', 리퀴드사운드의 전통예술 '긴:연희해체프로젝트' 등의 국내 공모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주제공연으로 자체 제작한 '아스팔트 부르스(부제: 너를 만나고 싶어)'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을 맞아 지역민과 예술인 200여 명이 직접 출연, 관람객들과 함께 광주만의 이야기 '모두의 울림'을 연출할 예정이다. 공연은 금남로 일원을 이동하면서 시민참여형 거리극, 공중극, 시민풍물단이 함께 어우러진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22일에는 비엔날레 광장에서 제 15회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16개의 예술공연이 펼쳐진다. 우석훈의 라이브드로잉 '떠돌이

화가', 천근성의 이동형 거리예술 '찾아가 글루맨, 광주에 가다' 등의 미술 퍼포먼스와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전통탈춤 '할멈과 무등산호랑이', 나라의 참여형 연극 '걱정인형을 살려주세요' 등이 관객을 기다린다. 28~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는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화려한 스트리트댄스 경연을 벌이는 '프린지리그 I'이 막을 올린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프린지리그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스트리트댄서들이 참가해 '댄스팀 퍼포먼스'와 '1대 1', '3대 3' 댄스 경연으로 진행된다. 전국 고교와 대학 스트리트댄스 관련학과와 대학전 형식으로 학교의 명예를 건 치열한 승부와 열띤 응원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댄스팀 퍼포먼스 경연은 댄스스타 블랙밥(B.O.T.B)이 사회를 보고, 진우(엠비서스), 리벨(코스믹디플로), 호진(월드페어), 먼로(가수 안무가), 해리(안무가) 등이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또 '1대 1', '3대 3' 댄스경연은 예선, 8강, 4강, 결승 등 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거리예술축제의 대명사 '2024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하 프린지)'을 오는 21일 금남로에서 막을 올린다. 프린지는 9월 2주간 토·일요일 금남로, 비엔날레 광장,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등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주시 제공

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댄서들이 심사위원들의 '저지쇼'와 '2024 일본 NTV 더 댄스 데이'에서 우승을 차지한 비비이팀 '진조크루', 락킹 댄스쿠루 '프렌치 프라이즈', 엠넷 스트리트 무언 파이터2에 출연한 유명 댄서 '와씨'의 특별공연도 펼쳐져 스트리트댄스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먹거리 푸드트럭과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판매대, 광주문화재단과 협력기관 홍보부스 등 시민

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거리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거리축제로 인해 20일 낮 12시부터 21일 자정까지 전일빌딩부터 금남공원까지 도로가 통제되며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전당역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정차하지 않고 우회한다. 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승강장에 우회 안내표를 부착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며, 우회하는 19개 노선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광주시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누리집(http://fringefestival.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은 시민·예술인·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축제이자 공동체 화합을 나타내는 광주 정신이 담긴 축제"라며 "울기를 광주를 느끼고 싶다면 축제장을 꼭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전남도, 산업기계 6개 기업 중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청신호

전라남도는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2024 산업기계 리아드-다카 시장개척단'을 지난 13일까지 6일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남을 대표

하는 산업기계 6개 기업이 참가해 중동과 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했다.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아람코, 사비 등 35개 현지 바이어가 참

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70건의 상담을 통해 1천102만 5천 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참가 기업은 각자의 핵심 제품인 산업용 벨브, 신축이음관, 태양열 집열 시스템, 정밀화학제품, 단열재, 불팅 장비 등을 소개

하며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현지 조달 관계자와 바이어를 초청한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총 4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4천110만 7천 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페어 그룹(Fair Group), 윌튼 그룹, HNS 그룹 등 방글라데시 주요 기업이 참석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출 상담회에는 에너지 및 플랜트 산업에 적합한 산업용 벨브를 제시하는 (주)엠티에스, 발전소와 건설 프로젝트에 적합한 신축이음관을 제시한 (주)디엔티, 중동 및 남아

시아 시장에 확장 가능한 태양열 집열기를 선보인 금철이노베이션, 정밀화학 제품과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주)에스에프시, 건설 시장에 활용도가 높은 경향산업(유), 유압 및 공압 토르렌치를 선보인 불팅마스타(주)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서용근 기자

